

## 명저 산책 Book Review

### 알베르토 플로레스 갈린도의 『잉카 왕을 찾아서: 안데스의 정체성과 유토피아』

우 석 균

#### 1. 희극으로 반복된 역사

마르크스는 역사는 두 번 반복된다고 말했다. 한 번은 비극으로, 그리고 또 한 번은 희극으로. 잉카 제국의 고도 쿠스코 중앙광장에서 24년의 간극을 두고 집행된 두 건의 공개처형에 딱 들어맞는 말이다. 1781년 5월 18일 쿠스코 중앙광장에서는 투팍 아마루 2세가 처형되었다. 원래 이름이 호세 가브리엘 콘도르칸키인 그는 식민체제에 저항하여 1780년 봉기를 일으켜 원주민 국가 건설까지 천명하였다. 그러면서 자신을 투팍 아마루 2세로 칭하였다. 투팍 아마루는 원래 잉카왕조 복원을 위해 빌카밤바를 중심으로 저항하다가 1572년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잉카의 마지막 군주의 이름이다. 그리고 콘도르칸키는 비록 메스티소이지만 잉카 왕실의 피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투팍 아마루 2세라는 이름을 택한 것이다. 투팍 아마루 2세의 처형은 희대의 스펙터클이었다. 수많은 사람이 운집하여 그 광경을 구경했고, 사형집행자들은 기대에 부응하려는 듯 치밀한 연출로 화답했다. 먼저 투팍 아마루 2세의 아들의 혀를 무참하게 뽑아버렸고, 그 다음에는 그의 아내의 목을 여러 개의 밧줄로 동시에 조이면서 죽을 때까지 배를 사정없이 걷어찼다. 그 다음에는 투팍 아마루 2세의 팔다리를 네

마리 말에 한 짝씩 묶어 놓고, 말이 각각 다른 방향으로 달리도록 채찍질을 가했다. 투팍 아마루 2세를 네 토막으로 찢어 죽이려고 한 것이다. 결국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



투팍 아마루 2세의 처형 장면

해 능지처참으로 끝을 맺었지만, 허공에 떠올라 파르르 떨리던 콘도르칸키의 육신은 정복시대의 대표적인 비극적 순간으로 길이길이 기억되었다.

그로부터 24년 뒤인 1805년 12월 5일 같은 장소에서 공개처형이 거행되었고, 그 주인공은 호세 가브리엘 아길라르였다. 그러나 이 처형식은 스펙터클과는 거리가 멀었다. 구경하는 사람도 별로 없었고, 본보기로 삼기 위한 잘 짜인 각본도 존재하지 않았다. 반역죄로 몰린 것 자체가 넌센스였다. 평소 식민체제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고는 하지만 아길라르는 거사를 일으킨 적이 없었다. 고발이 접수되면서 일이 커져 반란의 수괴로 몰린 것뿐이다. 그리고 일이 커지게 된 것은 정신이상 징후 때문이었다. 심문을 받으면서 예수가 자신을 아들이라고 부르며 지상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되리라고 말했다는 등, 자신에게 천사와 성인이 될 후손들이 태어나 위대한 왕국을 세울 거라는 등 어렸을 때부터의 꿈 이야기를 천연덕스럽게 늘어놓았던 것이다. 하지만 이단이라면 모를까, 어쩌서 역모로 몰렸을까? 아길라르를 밀고한 마리아노 레추가라는 인물의 꿈 이야기 때문이었다. 쿠스코에서 아길라르가 독수리로 변해(독수리는 스페인어로 ‘아길라’이다) 왕관을 쓰고 해안으로 날아가 그곳에서 비상한 또 다른 독수리와 싸우는데, 이 두 번째 독수리가 쓴 왕관은 비상할 때부터 이미 떨어질락 말락 했다는 내용의 꿈이었다. 이 이야기는 스페인이 구축한 식민체제의 종식을 예고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었다. 페루 부왕령의 수도 리마가 해안에 위치해 있는데, 그곳에서 비상한 독수리의 왕관이 떨어지려고 했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 꿈은 잉카 제국의 복원을 예고하는 것처

럼 해석될 여지도 있었다. 앞서 밝혔듯이 쿠스코는 잉카 제국의 옛 수도이기 때문이다. 꿈을 믿고 아홉 살 때부터 자신이 신에게 선택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인생을 허비한 아길라르, 꿈을 증거로 그를 믿고한 인물, 본보기 삼아 공개처형을 결정한 식민당국 등등 모두가 희대의 코미디를 연출한 셈이다.

## 2. 왕의 귀환

아길라르 사건에는 두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이 있다. 첫째, 아길라르 역시 부친은 스페인 태생이고 어머니는 아메리카 태생의 크리오요였지만, 그의 꿈 이야기에 현혹되어 식민체제를 대신할 다른 세상을 꿈꾼 이들 대부분이 크리오요 혹은 메스티소들이었다는 점이다. 심지어 이들 중에는 프란체스코 교단의 사제들도 있었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길라르 사건이 잉카 복원 운동으로 의심받았다는 점이다. 그럴 만도 했다. 투팍 아마루 2세가 메스티소임에도 잉카 혈통을 내세웠듯이, 식민시대의 수많은 봉기가 잉카 군주 혹은 제국과의 관련성을 내세워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1666년 무렵 페루 리마, 에콰도르 키토, 아르헨티나 투쿠만의 일련의 봉기나 거사계획들이 그러했고, 이런 경향이 18세기에 정점을 이루어 아마존 지역을 근거지로 한 후안 산토스 아타왈파의 1742년 봉기와 쿠스코 일대에서 시작되어 볼리비아까지 번진 투팍 아마루 2세의 1780년 봉기로 이어진 것이다.

이처럼 잉카를 구심점으로 대안의 세계를 열망한 안데스인의 역사를 추적한 명저가 있다. 페루의 역사학자 알베르토 플로레스 갈린도(Alberto Flores Galindo, 1949~1990)의 『잉카 왕을 찾아서: 안데스의 정체성과 유토피아』(Buscando un Inca: identidad y utopía en los Andes, 1986)이다. 1986년 쿠바의 ‘카사 데 라스 아메리카스’가 수여하는 에세이 상

을 받은 책으로, 1988년 증보판이 페루에서 출간되었다.

책의 주요 논지는 잉카 군주를 메시아로 여기는 믿음이 안데스에 존재하고, 이런 공통의 믿음이 정복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안데스인들의 정체성의 토대를 이루며, 안데스인들은 이 믿음을 통해 유토피아와도 같은 이상적인 질서를 열망하고 있다는 것이다.

플로레스 갈린도가 이러한 통찰을 내놓기까지는 일련의 사전 연구들이 있었다. ‘왕의 귀환’에 대한 안데스인의 열망이 학계의 주목을 처음 받게 된 것은 페루의 인류학자이자 소설가 호세 마리아 아르케다스가 1953~1956년 ‘잉카리 신화’(mito de Inkarrí) 3종을 채집하면서이다. ‘잉카리’의 ‘리’는 스페인어의 ‘레이’(rey), 즉 ‘왕’에서 유래한 말이니 ‘잉카리 신화’는 ‘잉카의 왕’ 신화라는 뜻이다. 내용은 대체로, 스페인인들의 포로가 되어 참수된 잉카리의 머리가 쿠스코에 있고, 그 머리에서 땅 밑으로 몸이 자라고 있으며, 몸이 다시 복원되면 다시 돌아와 최후의 심판을 내릴 것이라는 내용이다. 잉카리 신화의 기원이 언제인지는 정확히 가늠하기 힘들지만 프랭클린 피즈는 이 신화가 적어도 17세기 초에 확산되기 시작했다고 말한다. 잉카리 신화는 아르케다스의 권유로 연구에 착수한 알레한드로 오르티스 등에 의해 1972년까지 12종이 추가 채집되었고, 메르세데스 로페스-바랄트의 1998년 연구서인 『잉카 왕의 귀환: 안데스의 신화와 예언』(El retorno del Inca rey: mito y profecía en el mundo andino)에 따르면 수백 종에 이른다고 한다.

이러한 연구 동향은 비단 페루 학계에 국한된 일이 아니었다. 가령, 멕시코 학자 미겔 레온-포르티야는 『패자의 시각: 원주민들의 정복 보고서』(1959)에서 패자의 시각을 복원하여 승자의 시각으로 점철된 역사서술



쿠바에서 출판된  
『잉카 왕을 찾아서』

의 오류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아르케다스와 레온-포르티야 모두 원주민 시각의 복원을 시도했다는 공통점이 있는 것이다. 레온-포르티야의 연구는 안데스연구에도 영향을 끼쳤다. 후안 M. 오시오는 1970년 옥스퍼드 대학 인류학연구소에 『와망 포마의 역사 사상』(The Idea of History in Guaman Poma de Ayala)이라는 박사논문을 제출했고, 나탄 워첼도 비슷한 시기인 1971년에 『패자들: 스페인 정복에 직면한 페루 원주민(1530-1570)』(Los vencidos: los indios del Perú frente a la conquista española(1530-1570))를 저술했다. M. 오시오는 1973년에는 안데스의 메시아 신앙, 기존질서의 전복을 바라는 열망, 잉카의 상징적 의미 등을 다룬 여러 학자들의 글과 패자의 시각이 담긴 원주민 신화 및 민담을 묶어서 『안데스의 메시아적 이데올로기』를 편찬하면서, 원주민의 시각이 결여되어 있는 기존 역사서술의 문제점을 또다시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아르케다스에서 플로레스 갈린도에 이르는 기나긴 지적 흐름에 독자적인 시각의 역사서술이 필요하다는 라틴아메리카 학계의 사명감이 투영되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플로레스 갈린도의 공헌은 이러한 일련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유토피아 사상이 정복 이후 20세기에 이르는 안데스 역사를 관통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를 ‘안데스 유토피아’로 개념화시켰다는 점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플로레스 갈린도는 안데스 유토피아의 기원과 착근을 뒷받침한 여러 가지 이념과 사건을 추적한다. 내세에서가 아니라 지상에서의 구원 가능성을 천착한 프란체스코 교단의 수도원장 호아킨 데 피오리(1145~1202)의 천년왕국설, 아메리카 발견을 최후의 심판이 임박한 징후로 해석하고 최후의 전교 사업을 위해 기꺼이 아메리카로 건너간 일부 프란체스코 교단 사제들, 폭력적인 정복이 야기한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원주민들에게 매력적으로 받아들여진 예수 부활 이야기, 조상대대로 믿던 지역 수호신인 와카가 정복군을 물리치리라는 민간신앙의 유포, 빌카밤바에 건재한 잉카의 저항 왕조, 아타왈파의 죽음을 다룬 연극 공연의 대중

화, 잉카리 신화, 17세기 초에 처음 발간되어 여러 차례 재간되면서 안데스 원주민 엘리트들 사이에 잉카 군주들이 성군이었다는 맹목적인 향수를 확산시킨 잉카 가르실라소의 『잉카 왕실 이야기』(Comentarios reales de los incas)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해석을 바탕으로 플로레스 갈린도는 앞서 언급한 후안 산토스 아타왈파, 투팍 아마루 2세, 호세 가브리엘 아길라르의 봉기는 물론이고, 1919~1923년 페루 남부 안데스의 각종 원주민 소요, 1960년대 초반 쿠스코 인근의 토지점거운동, 1980년 아야쿠초에서 봉기하여 페루를 준 내전 상황으로 몰고 간 ‘빛나는 길’(Sendero Luminoso)까지도 안데스 유토피아에 입각한 저항이었다고 주장한다.

### 3. 마리아테기, 1968세대, 플로레스 갈린도

플로레스 갈린도는 카야오에서 출생했다. 당시는 독립적인 도시였지만 지금은 수도 리마에 편입되었을 정도로 리마와 지척인 곳이다. 1970년대부터 학계의 이목을 끌었으며, 1984년 파리사회과학고등연구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이전에 이미 페루 지성계의 샛별로 꼽혔다. 미시사 연구를 페루에 도입한 최초의 인물 중 하나이며, 그밖에도 아날학파, 영국 신좌파, 정신분석, 그람시, 푸코 등에도 두루 관심을 보였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플로레스 갈린도는 학문적으로 대단히 국제주의적인 면모를 지니고 있었다.

사실상 리마 출신이고 원주민도 아니며, 지역주의나 쇼비니즘과도 거리가 먼 이력의 소유자인 플로레스 갈린도가 『잉카 왕을 찾아서』 같은 책을 썼다는 사실이 뜻밖으로 보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페루의 비판적 사유 전통이나 당대의 지적 풍토를 고려하면 그다지 이상할 것 없는 일이다. 플로레스 갈린도는 페루 비판적 사유의 계보에서 중추적 인물인 호세 카를로스 마리아테기(1895~1930)의 적자로 평가되고 실제로 그를 존경했



알베르토 플로레스 갈린도



호세 카를로스 마리아테기

다. 사실 두 사람 사이에는 공통점이 많다. 사회주의자였고 당대의 논객이었고 요절했다는 점까지 유사하다. 마리아테기는 흔히 그람시와 많이 비교되는데, 이는 그가 마르크스주의를 페루 현실에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했기 때문이다. 즉, 마르크스주의의 기계적 적용을 거부한 것이다. 이런 고민이 코민테른과의 갈등을 초래했고, 1928년 그가 창당한 페루사회당도 독자노선을 추구했다. 플로레스 갈린도는 바로 마리아테기의 이런 점을 높이 평가했다. 그래서 『마리아테기의 고뇌: 코민테른과의 논쟁』(1980)을 저술하기도 했고, 페루 현실에 맞는 사회주의 연구를 위해 1986년 ‘사회주의연구소 수르’(Sur Casa de Estudios del Socialismo)라는 기관도 창립했다. 마리아테기가 생각하는 페루식 사회주의는 전통적인 원주민 공동체주의에 의거한 사회주의였다. 민족 부르주아지로 발전하려는 역량도 의지도 없는 해안지대, 특히 리마의 과두계층에게 페루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는 신념 때문이다. 플로레스 갈린도가 안데스에서 페루의 대안적 질서의 가능성을 모색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당대의 지적 풍토 역시 플로레스 갈린도로 하여금 안데스를 주목하게 만들었다. 그는 소위 1968세대에 속한다. 1968세대라고 하면 파리학생시위가 먼저 연상될 것이다. 물론 라틴아메리카 지식인과 청년들이 사르트르의 비판정신에 경도되어 있을 때이고, 1968년이라는 해가 전 세계적으로 유토피아를 꿈꾸던 시대이니 플로레스 갈린도에게도 커다란 영향을 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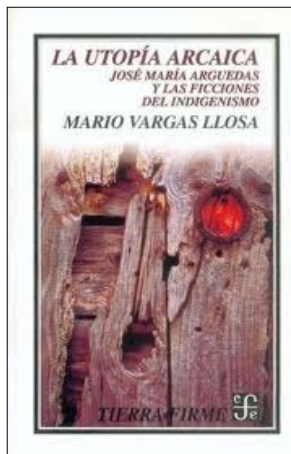
쳤을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페루에서 1968년은 벨라스코가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해이기도 하다. 군인이면서도 라틴아메리카에서 보기 드물게 진보적인 민족주의 노선을 표방한 벨라스코는 대대적인 농지개혁에 착수했다. 농지개혁은 1960년대 내내 페루 사회의 화두였기 때문에 지식인들은 사회변혁의 가능성에 기대를 걸게 되었고, 일정 부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점점 그 가능성이 소진되는 징후가 나타나자(특히 안데스에서) 좌절하거나 원인 규명에 매달렸다. 페루의 1968세대는 바로 벨라스코 정권이 보여준 사회변혁의 가능성과 좌절과 같이 한 세대였고, 그 중심에 플로레스 갈린도가 있었던 것이다.

#### 4. 이상주의가 이끄는 역사 발전

『잉카 왕을 찾아서』가 발간된 다음날 바로 이 책이 “반근대적이고 보수적인 역사 담론”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근대화와 도시화로 안데스도 변하고 농촌도 사라지는 시점에 잉카 군주의 귀환을 바라는 안데스 유토피아에 집착하고, 좌파에 대한 환멸이 확산되는 판국에 여전히 사회주의 혁명을 꿈꾸고, 지지를 보내고 있지는 않지만 엄청난 사상자와 후유증을 남긴 ‘빛나는 길’의 붕괴 원인마저 이해하려는 태도를 플로레스 갈린도가 보이고 있는 데 대한 비판이었다. 플로레스 갈린도에 대한 비판은 훗날 마리오 바르가스 요사의 아르케다스 비판, 즉 아르케다스가 문학적으로는 빼어난 작품을 썼지만 아름다운 거짓말이자 시대착오적인 유토피아에 불과하다는 『케케묵은 유토피아: 호세 마리아 아르케다스와 원주민주의 픽션』의 논조와 같은 맥락의 비판이다.

그러나 『잉카 왕을 찾아서』가 과거회귀적이라거나 시대착오적이라는 주장은 플로레스 갈린도의 지적 궤적을 이해하지 못한 소치이다. 플로레스 갈린도의 평생 고민은 어쩌서 페루에는 새로운 질서를 태동시킬 진정





바르가스 요사의  
『케케묵은 유토피아』

한 혹은 성공적인 사회혁명이 없었는가 하는 것이다. 투팍 아마루 2세의 봉기, 독립, ‘빛나는 길’을 비롯한 20세기의 각종 봉기가 사회변혁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실패한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평생을 바친 것이다. 무엇보다도 플로레스 갈린도는 과거로 되돌아가자고 주장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과거를 재구성해서 현재의 여러 가지 문제의 해결책을 발견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질서를 구축해 가자는 미래지향적인 목표를 지니고 있었다. 아이러니하게도

바르가스 요사가 아르케다스 비판의 전거 중 하나로 『잉카 왕을 찾아서』를 이용하고 있는 이유도 플로레스 갈린도의 지적 능력을 높이 평가했다는 점 외에도 그가 과거회귀적인 인물이 아니라는 판단 때문이다.

사회주의 경도에 대한 비판도 생각해볼 만한 점이 있다. 플로레스 갈린도가 얼마나 사회주의를 신봉했는지는 1989년 12월에 남긴 유언장 「유토피아 영역을 재발견합시다」에 분명히 나타난다. 베를린장벽 붕괴 이후의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사회주의를 포기하지 않고 있었다. 『잉카 왕을 찾아서』의 관심사도 ‘원주민’보다는 계급으로서의 ‘농민’(campesino)이었다. 그러나 플로레스 갈린도는 마리아테기처럼 결코 ‘정통’ 마르크스주의의 틀에 갇혀 있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말하고 싶다. 사회주의의 비판자들에게 플로레스 갈린도는 농민을 통한 계급혁명을 포기하지 못한 인물로 비치지만, 사실 『잉카 왕을 찾아서』는 농민이라는 계급 범주도 편협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래서 ‘안데스인’이라는 범주를 새로운 사회적 주체로 상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수없이 되풀이된 안데스의 각종 봉기의 원인도 단순한 계급갈등이 아니라 지역갈등과 인종 및 종족 갈등이 혼재된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 이를테면 계급 투쟁이 역사발전의 동력이라는 마르크스주의의 기본 입장을 상당 부분 유

보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마르크스주의의 토대를 이루는 유물론적 역사관에도 메스를 들이댄다. 안데스 유토피아 같은 열망, 즉 상부구조에 속하는 영역에서 오히려 사회변혁의 가능성을 보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유토피아에서 변혁의 가능성을 찾는 이러한 태도는 발전주의의 틀에 사로잡힌 우파 지식인들에게도 받아들일 수 없는 사안이었다. 하지만 에두아르도 카세레스 발디비아는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페루에서는 이상주의들이 진보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반면 물질 매트릭스(matriz materialista)에 의거한 근대성의 제안들은 보통 좌절한다”라고 말한다. 플로레스 갈린도가 마리아테기로 상징되는 페루의 비판적 지식인 전통을 잇고 있고, 그 전통은 유물론적 전통이 아니라 이상주의 전통이며, 페루처럼 근대화의 고비마다 좌절을 겪은 나라에서는 물질 토대가 아니라 미래 비전이 그나마 역사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된다는 지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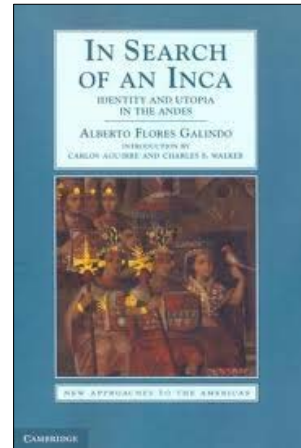
## 5. 파차쿠티

플로레스 갈린도의 『잉카 왕을 찾아서』는 마르크스주의의 틀에 갇히지 않고 역사적으로 뿌리 깊은 안데스의 인종 문제와 종족성 문제로 관심 영역을 확장시켰다는 점에서 미시사, 다문화주의, 원주민운동 등 1990년대 이래의 학계와 사회변화에 시사점이 크다. 『잉카 왕을 찾아서』는 플로레스 갈린도의 절친한 벗이자 학문적 동반자였던 마누엘 부르가의 『어느 유토피아의 탄생: 잉카 왕들의 죽음과 부활』(1988)과 더불어 잉카리 신화, 뒤집힌 세상을 꿈꾸는 전복적 상상력, 잉카 메시아 신앙, 안데스 유토피아 등에 주목한 일련의 안데스연구의 대미를 장식한 책이다. 지적, 사회적 선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을 장식했다는 역설은 아무래도 안데스 유토피아 같은 ‘비합리적’인 믿음이 실제로 현실에 개입해서 이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잠시 눈을 돌려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를 필두로 16~18세기 사이에 출판된 서구의 유토피아 관련 저작들을 생각해보자. 이들은 하나같이 근대 사회의 각종 모순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향을 꿈꾸었다. 하지만 토마스 모어를 비롯한 유토피아 장르의 저자들이 당대에 성공적으로 현실에 개입하고 이를 변화시킨 것은 결코 아니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근대 사회의 모순을 일찌감치 깨닫고 비판한 그들의 노력을 하찮은 것으로 치부할 수 있을까? 더구나 안데스 유토피아는 서구 유토피아의 단순한 답습이 아니라 그야말로 독특한 현상이다. 서구 유토피아 관련 저서들은 신화 속의 장소나 원시사회 혹은 다른 문명권의 어딘가를 이상향으로 삼았다. 반면 안데스 유토피아는 플로레스 갈린도가 말하는 것처럼 타완틴수요(잉카인들이 자신의 나라를 이렇게 불렀음)라는 국가, 잉카 군주라는 역사적 인물들, 쿠스코라는 잉카 제국의 수도라는 역사적 실체와 현실 속의 무대를 지니고 있다. 심지어 아스테카 문명의 본고장 멕시코에는 아스테카 유토피아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안데스만 서구 유토피아와는 차별화되는 유토피아, 서구 유토피아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역사적, 현실적 개입의 가능성을 모색한 유토피아가 존재했던 것이다. 또한 서구 유토피아가 근대성에 대한 비판이라면, 안데스 유토피아는 식민성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이며 나아가 서구 근대성의 억압적 팽창에 대한 비판이라는 점에서 훨씬 더 의미가 크다. 이러한 독특함과 심오한 의미에도 불구하고 안데스 유토피아를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인 열망으로 몰아가는 것은 결국 지식의 지정학적 속성 때문이다. 서구가 아니라 안데스에서 일어난 현상이고, 토마스 모어가 아니라 플로레스 갈린도가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평가절하된 것이다.

『잉카 왕을 찾아서』는 2010년 뒤늦게 영어로 번역되면서 다시금 그 가치를 입증 받았다. 하지만 외국 학계의 인정을 받았다는 사실보다 더 의미심장한 일이 현실에서 벌어졌다. 현재 페루, 에콰도르, 볼리비아처럼 원주민 인구가 많은 나라에서는 원주민의 지지 없이는 대통령 당선

의 불가능할 정도로 정치 지형도가 변화했다. 1990년대부터 고조된 원주민운동으로 원주민들이 사회적 주체로 거듭난 결과이다. 이들은 최근의 변화를 파차쿠티 혹은 파차쿠텍으로 인식한다. ‘파차쿠티’는 원래 ‘지축의 흔들림’, 즉 지진을 뜻한다. 하지만 ‘대재앙’ 혹은 ‘개벽’이라는 비유적 의미로도 많이 통용된다. 하나의 단어가 대재앙과 개벽이라는 정반대 뜻을 지니고 있는 것이 의아스럽겠지만, 세상이 열렸다가 대재앙으로 멸망하고 다시금 새 세상이 열린다고 믿는 전통적인 원주민의 우주관을 고려하면 별로 이상할 것 없다. 그런데 파차쿠티는 잉카를 부족국가에서 대제국으로 탈바꿈시킨 잉카의 9대 군주의 이름이기도 하다. 안데스 유토피아의 믿음, 즉 스페인 통치가 언젠가 종식되고 잉카 군주에 의해 새로운 시대가 다시 열릴 것이라는 믿음이 오늘날의 안데스 원주민운동에서 ‘파차쿠티’라는 개념으로 변모한 것이다.



『잉카 왕을 찾아서』의  
영어판 표지

### 같이 읽어볼 만한 책

- Alberto Flores Galindo, *La agonía de Mariátegui: la polémica con la Komintern*, 1980.
- Juan M. Ossio A. (ed.), *Ideología mesiánica del mundo andino*, 1973.
- Manuel Burga, *Nacimiento de una utopía: muerte y resurrección de los incas*, 1988.
- Mario Vargas Llosa, *La utopía arcaica: José María Arguedas y las ficciones del indigenismo*, 1996.
- Miguel León-Portilla, *Visión de los vencidos: relaciones indígenas de la conquista*, 1959.

우석균 —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HK교수